

정원한류 콘텐츠 발굴을 위한 조선시대 정원의 공간질서에 나타난 효사상 연구

A Study on the Filial Piety Thoughts shown in the Spatial Order of Joseon-era Gardens to develop a Korean wave content of garden

이 원 호*, 신 현 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중국 북경대학교 도시 및 환경과학학원

Lee won-ho*, Shin, hyun-sil**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ollege of Urban and Environmental Sciences,
Peking University, China**

요약

본 연구는 K-Garden 조성분과 관련하여 한국전통정원콘텐츠 발굴을 위해 조선시대 대표적 정원인 소쇄원의 공간적 특질을 효사상의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소쇄원의 효사상은 양산보의 효부에 나타난 효의 실천을 통한 수·제·치·평과 신분질서를 통한 상·하 공간의 위계, 후손들의 선대정원의 회복의지, 경관연출, 경관요소의 제명에 투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효사상은 정원의 장소성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용가치가 기대된다.

I. 서론

최근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한류붐과 맞물리면서 K-Garden 이라는 한국의 정원문화가 신한류붐을 타고 주목받고 있다. K-Garden은 주로 한국전통정원에서 그 모티브를 찾고 있는데, 최근 들어 해외에 한국정원 조성사업이 활발하지만 우리만의 특성을 인식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비교문화적 차원에서 한국정원의 정체성을 발굴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원은 당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시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형성물로 여러 세대에 걸쳐 형성된 정원문화가 누적됨에 따라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된다. 특히 한국의 전통정원은 유교적 영향에 의해 그 소유주가 혈연관계로 대물림됨에 따라 선대의 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면서, 정원에 내재된 인식, 문화, 행위 등이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이러한 행태의 반복과 학습을 통해 고정화 된 가치인식이 정원공간에 물리적으로 투영되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한국 전통정원의 가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원공간의 외형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시기별 정원 소유주의 인식과 행위, 당시의 시대적 상황 등 다각적인 접근으로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한자문화권과 유교는 효(孝)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조선건국이념인 유교사상은 조선시대 독창적 문화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오늘날 세계유산등재가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관광수익이라는 매력적 성과로 가시화되면서 세계유산 등재주

진을 위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작업이 한창이다. 이에 한국의 전통정원은 문화주권을 점유하는데 더없이 중요한 사업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남아있는 한국의 전통정원들은 현재에 재현된 유적이 대부분이고 한국정원만의 정체성 부각과 정원 조성시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기에는 해당분야의 학문적 관심과 축적된 성과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사실에 입각한 역사콘텐츠의 하나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담은 개별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간구성원리에 대한 정원한류 스토리 콘텐츠 발굴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조선시대 정원에 나타난 조영자의 조영의도, 당호 등 제명에 나타난 효사상, 신분질서에 의한 공간구성, 정원의 공간변화 양상을 통해 효사상과의 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전통정원의 효사상과 관련된 제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 정원의 공간질서가 정원 소유주의 조영활동과 당시의 시대적 상황 및 향유문화가 상호 영향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대표 사례로 소쇄원을 대상으로 정원의 소유주에 따른 정원조영 경향과 당시의 정원향유와 시대적 상황을 통해 정원공간의 변화에 따른 의도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료는 소쇄원사실 등 시문과 문집류에서 나타나는 정원의 변천과정을 정원 소유주의 기여도에 따라 구분하고, 주요 행위, 사건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 및 정원에서의 향유문화를 살펴봄으로써 공간구조 변화양상에 나타난 효사상을 고찰하였다.

소쇄원은 한국 조선시대 대표적 정원으로 이름이 높고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곳은 자연과 인공의 조화, 경사를 이용한 화계의 도입, 유교적 영향에 의한 공간의 수직적 위계 설정 등 한국의 전통정원 요소가 도입된 양식론적 가치뿐만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자연에 은거하는 처사의 삶이 내재된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인문 활동이 축적되어 정원문화의 전범을 이루어 온 곳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선시대 유교와 효사상

조선시대 통치이념의 근간을 이룬 것은 유교였다. 조선시대에는 왕과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공간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왕이 살고 있는 수도 한양 건설의 중요한 개념들을 제공하였다¹⁾. 한자문화권에서 유가사상과 효사상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효는 임금에 효로써 천하를 다스려야 하고(효경), 진실로 오직 효도하는 것이 바로 정치(논어 학이편)라는 윤리관에 따라 국가통치윤리로 작용하여 효는 국가의 존재, 사회의 안녕, 가족의 평화, 문화의 유지에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인식되었다²⁾. 조선시대에는 이씨 단일 왕조의 혈연관계 위주의 왕위계승을 통해 이를 더욱 공고히 하였는데 효와 제는 인의 근본으로 삼았고 효의 기본적 관계인 부자관계의 궁극적인 확장형을 군신관계로 보았다.

2. 소쇄원의 공간질서와 효의 관련성

효는 신분질서에 따른 상·하, 존·비의 윤리이다. 효는 단순히 부모를 섬기고 봉양하는 것만이 아니고 신분에 따라, 그 직분에 따라 이상적으로 몸소 정진하는 것을 일컫는대³⁾. 유교의 영향으로 조상숭배, 남녀유별, 장유유서, 상하관계를 고려한 위계성이 반영되었는데⁴⁾, 조선시대 상류주택구조에서 나타나는 신분에 따른 채를 중심으로 한 공간구분이 가장 특징적인 사례이다.

소쇄원의 공간구조는 이러한 위계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소쇄원 48영에서 나타나는 소쇄원의 모습은 가장 높은 단에 위치한 주인의 거처인 제월당과 화계, 손님들을 위한 공간인 광풍각, 주변에 위치한 계류와 석물, 수목 등이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면서 영역의 주체를 배려한 공간구성요소를 도입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이 정원 조영자의 공간임을 자연계류를 담으로 막아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련성은 조영자의 사상적 측면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소쇄원의 조영자는 양산보(梁山甫, 1503-1557)로 기묘사화(己卯士禍, 1519) 이후 세상에 뜻을 잃고 자신의 본가 일대에 은거하고자 정원을 조성한데서 기원하였다.

양산보가 지은 『효부』는 천지만물 사이에서 인간이 생겨남과 모든 천륜의 근원이 부모로부터 비롯됨을 말하고 효도의 당연함을 노래한 것이었다⁵⁾. 그는 정치적 여파로 인해 정계로 나가지 못하고 소학의 가르침을 효도로 실천하며 주변 인물들과 함께 교류하는 공간으로써 소쇄원을 조영하고 경영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3. 소쇄원의 공간변화와 효

조성초기 소쇄원은 은거의 공간으로 양산보가 터를 잡고 대부분의 정원형태를 갖추었으며, 양자정 대에는 기존의 정원을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나 전란에 의해 소실되었다. 이후 양천운 대에 중수를 시작하고 그의 손자인 양진태, 양택지 대에 이르러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였으며, 양경지는 소쇄원의 외원을 설정하는 등 조영 이래 2차례의 대규모 정원 조성사업과 1차례의 확장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양천운은 『소쇄원계당중수상량문(瀟灑園溪堂重修上梁文)』에 ‘반드시 복구해야 할 것임을 알면서도 오늘에까지 이르니 부끄럽기 그지 없다.’⁶⁾ 라고 밝히고 있고 양경지의 공간 확장시에도 양산보의 원래 내원공간을 그대로 존치하고 외원을 확대하는 등 선대의 공간을 존중하여 변형시키지 않았다. 또 양자정과 양자정이 자신들의 공간인 각각 고암정과 부월당을 조성한 장소도 기존의 공간구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박하게 이루어 졌다. 양산보의 후손들 중 정원의 퇴락한 정원의 회복을 꾀한 인물은 입신양명한 인물들 위주였다. 집안을 일으키는데는 정치가 가장 효과적이고 입신양명의 이유도 바로 집안(정원)을 다시 부흥시키려는 목적이 강하게 보인다.

4. 소쇄원내 명칭에서 보는 효사상

소쇄원의 공간에 각 명칭들 중에서 효사상에서 기인한 것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소쇄원 담장에 애양단은 부모를 따뜻하게 봉양한다는 의미의 대표적인 효의 상징이다. 소쇄원의 명칭에서 보여지는 효사상과의 관련성은 별도 발표자료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Ⅳ. 결론: 효와 정원한류 콘텐츠의 과제

콘텐츠 분야에서 스토리텔링은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스토리텔링은 창의적인 면이 관건이고 역사콘텐츠는 사실에 기반하여 창의성을 덧대는 방향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을 통한 정원공간의 장소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실에 기반한 콘텐츠는 이용자들에게 더욱 사실감을 더하게 한다. 특히 소쇄원의 경우는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원형공간도 존재하지만 아직 복원되지 않은 유구나 공간도 존재하고 있어 그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다.

■ 참고 문헌 ■

- [1] 전영옥, 조선시대 도시조경론, 일지사, 서울, 2003
- [2] 김익수, 한국의 효사상과 정신문화(2), (사)동양효문화연구원, 서울, 2013
- [3] 한국전통조경학회, 동양조경문화사, 도서출판 대가, 서울, 2009
- [4] 오종일, 소쇄원 양산보의 의리사상, 소쇄처사 탄신 5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전라남도·담양군·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 [5] 소쇄원시선편찬위원회, 소쇄원시선, 광명문화사, 광주, 1995